



은행 (Positive)

11월 연체율: 금리 하락에 의한 건전성 개선 예상

▶ Analyst 김도하 doha.kim@hanwha.com 3772-7479 / RA 권지우 Jiwoo.kwon@hanwha.com 3772-7689

국내은행의 11월 말 연체율은 0.52%(+6bp YoY)로 상승했습니다. 연체잔액은 여전히 대출잔액보다 빠르게 늘고 있으나, 그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리 하락에 의해 은행업종의 건전성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며, 연체율 상승은 2025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합니다. 다만 5년 전 취급된 고정형 주담대는 변수입니다.

국내은행 11월 말 연체율 0.52%(+6bp YoY)로 상승

- 국내은행의 11월 말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 기준)은 0.52%(+6bp YoY)로 상승 (그림 1~6)
- 법인 중소기업 연체율은 0.78%(+14bp YoY), 자영업자 연체율은 0.71%(+15bp YoY)로, 상승폭이 추세적으로 축소되고 있음. 변동성이 높은 대기업 연체율은 0.03%(-15bp YoY)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
- 가계 연체율은 0.41%로 2bp YoY 상승. 신용 등 일반대출은 0.82%(+6bp YoY), 주택대출 연체율은 0.27% (+2bp YoY)로, 속도는 미미하지만 전년 동월보다 상승하는 흐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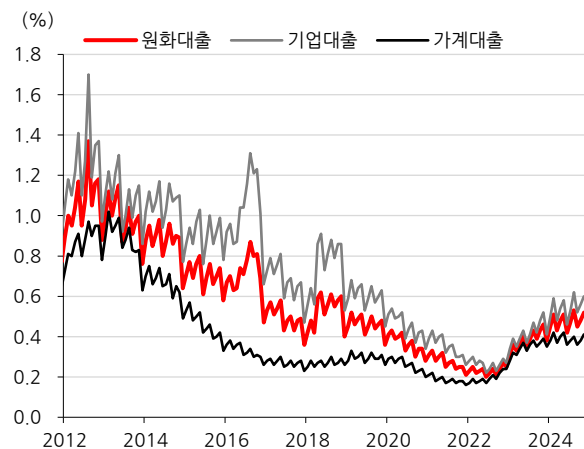
계절적인 상·매각 증가

- 은행업종 연체채권 잔액은 11월 말 12.1조원(+17% YoY)으로 증가 (그림7)
- 기업 (추정): 11월 말 기업 연체잔액은 +22% YoY로 추산. 중소기업 연체의 증가세는 법인과 자영업자 모두 둔화되고 있으나 대출 증가율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그 속도를 고려할 때 2025년 상반기까지는 연체율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그림10)
- 가계 (추정): 11월 말 가계 연체잔액은 +10% YoY로 추산. 크게 둔화되었던 주담대 연체 증가율이 재차 상승했는데, 과거 저리로 취급되었던 5년 고정금리 상품의 금리 변동주기가 도래한 영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림10)
- 11월 중 발생한 신규 연체 규모는 2.8조원으로 증가 (그림8). 월 중 정리(상·매각)된 연체채권은 2.0조원으로 전년 동월과 같은 수준을 나타냄

계절성을 감안하면 아직은 상승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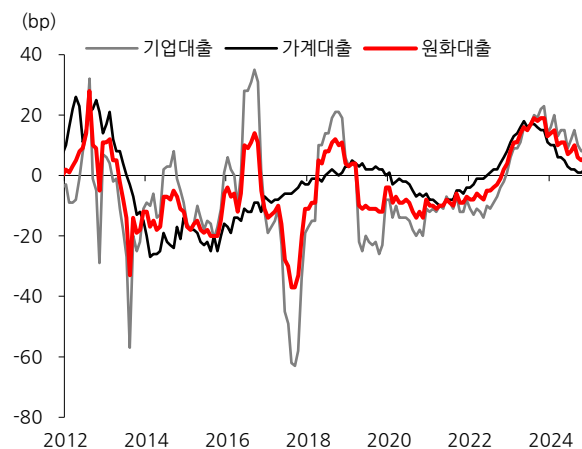
- 계절성(분기 말 상·매각)을 감안한 3MMA 연체잔액은 여전히 대출잔액보다 빠르게 늘고 있으나, 그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
- 시장금리의 하락은 신규 취급된 대출과 갱신되는 대출에 순차적으로 반영되면서 은행업종의 건전성을 개선시킬 것으로 예상. 따라서 연체 증가율이 대출 증가율을 상회하는 현상은 2025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함. 다만 전술한 대로 5년 전 취급된 고정형 주담대의 금리 갱신은 변수가 될 전망

[그림1] 국내은행 차주별 연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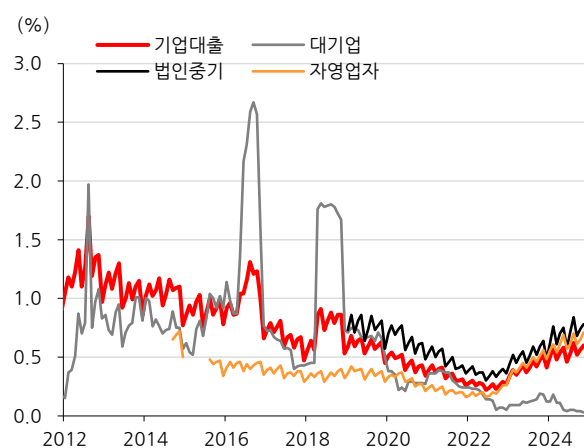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국내은행 차주별 연체율의 YoY 변동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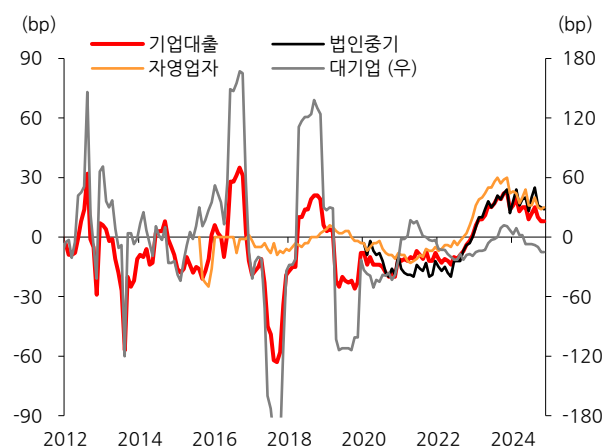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기업대출 연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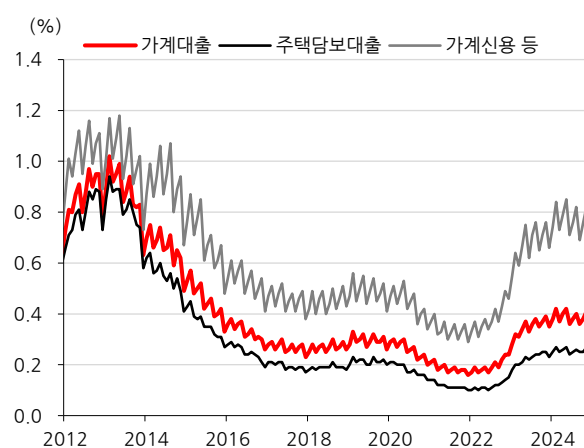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기업대출 연체율의 YoY 변동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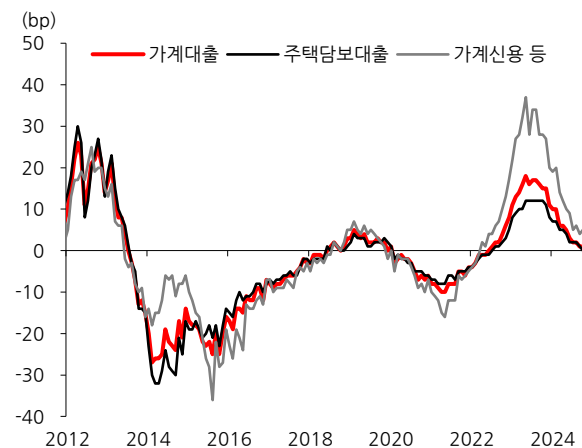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가계대출 연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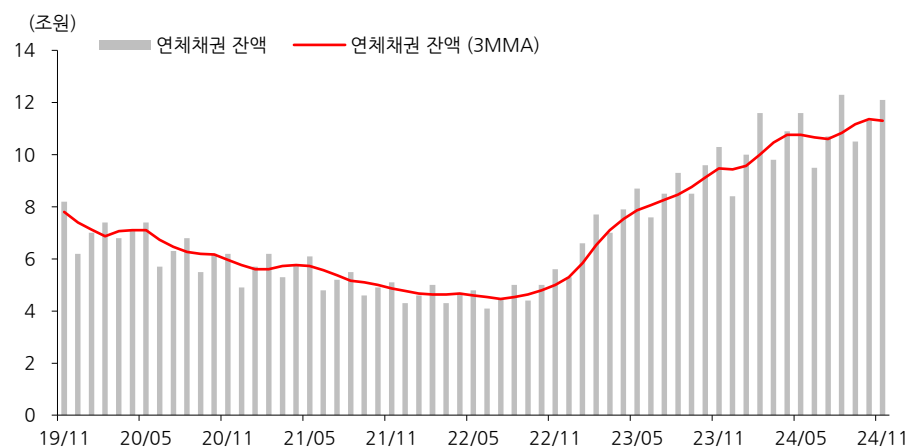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가계대출 연체율의 YoY 변동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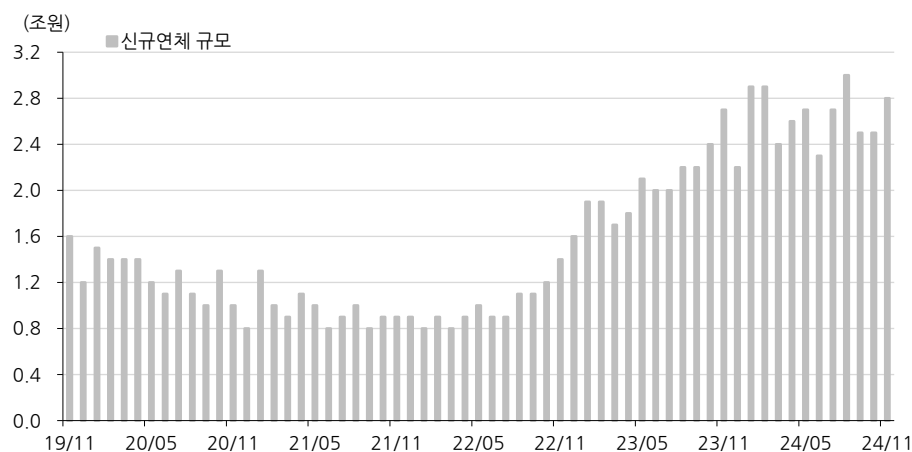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국내은행 연체채권 잔액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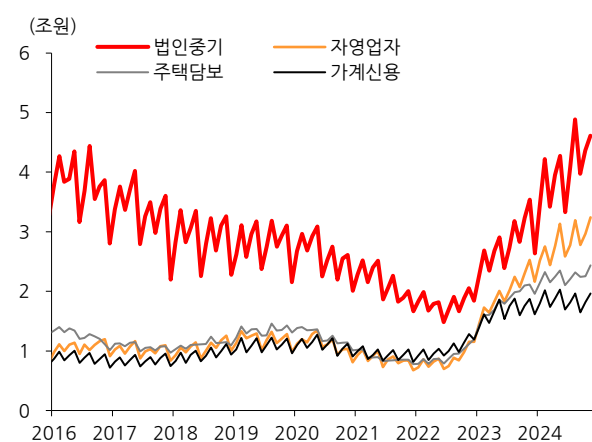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국내은행 월 중 신규 연체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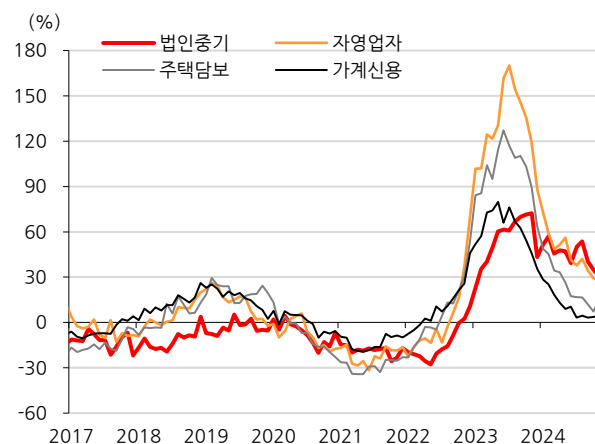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차주별 연체채권 잔액 규모 (추정)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차주별 연체채권 잔액의 YoY 증가율 (추정)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공표일: 2025년 1월 31일)

이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였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했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과 관련해 공표일 현재 관련 법규상 알려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도하, 권지우)
저희 회사는 공표일 현재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종목 투자등급]

당사는 개별 종목에 대해 향후 1년간 +15% 이상의 절대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 Buy(매수)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절대수익률 -15~+15%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Hold(보유) 의견을, -15% 이하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Sell(매도) 의견을 제시합니다. 밸류에이션 방법 등 절대수익률 산정은 개별 종목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의 추정에 따르며, 목표주가 산정이나 투자의견 변경 주기는 종목별로 다릅니다.

[산업 투자의견]

당사는 산업에 대해 향후 1년간 해당 업종의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Positive(긍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1년간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utral(중립적) 의견을, 과거 수익률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gative(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수익률 전망은 해당 산업 내 분석대상 종목들에 대한 담당 애널리스트의 분석과 판단에 따릅니다.

[당사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 부여 비중]

(기준일: 2024년 12월 31일)

투자등급	매수	중립	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중	92.0%	8.0%	0.0%	100.0%